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정기태



한해를 시작하면서 운조루(雲鳥樓)를 생각한다. 즈믄 새월, 온갖 풍상을 견뎌온 뵐(鶴屋), 그 빛바랜 속에 담긴 전설을 떠올린다. 한데, 전해년(丁亥年) 벽두(鷺頭)에 느닷없이 고택(古宅) 이야기를 끼낸 것은 무슨 깊이인가?

운조루는 조선 영조 52년(1776년) 낙안군수를 지낸 류이주(柳爾胄)가 세운 집이다. 구례군 토지면 오미리, 지리산 문수골 아래 자락에 터를 잡은 이곳엔 눈길을 끄는 게 두 개 있다. 하나는 굽은 통나무로 만든 뒤주고, 다른 하나는 굽뚝이다.

뒤주와 굽뚝에 숨은 뜻은...

쌀 두 가마 반이 들어가는 원통형 뒤주와 밑부분에는 가로 5cm 세로 10cm의 자그마한 직사각형 구멍이 뚫려 있다. 구멍을 여닫는 마개에는 '타인능해'(他人能解)라는 글씨가 쓰여 있다. '누구든 마음대로 쌀을 펴갈 수 있다'는 뜻이다. 뒤주에선

소출(所出)의 20%인 한해 서른여섯 가마가 나갔다고 전해온다.

운조루를 찾은 사람들은 이웃이나 과객(過客)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했던 그 너너한 마음씨에 감탄한다. 하지만 필

雲鳥樓를 생각하라

자는 뒤주가 있는 자리에서 더욱 숙연해진다.

뒤주는 후미진 곳간채에 놓여있다. 사랑채나 안채에 놔둔 여여집과 다르다. 주인과 얼굴을 마주치지 말고 편안하게 쌀을 가져가라고 배려한 것이다.

나지막한 굽뚝도 고개를 숙이게 하는 유물이다. 한옥은 굽뚝이 높아야 아궁이와 구들장의 연기가 잘 빠진다. 운조루의 굽뚝은 그러나 다른 집에 비해 아주 낮다.

그렇다면, 집 주인은 왜 굽뚝을 채 1m도 안되게 만든 것일까? 그것은 연기가

높이 올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보릿고개를 넘으며 초근목피(草根木皮)로 연명하던 배 고픈 사람들이 밥 짓는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면 더 서려울 거라는 속내였다.

운조루의 뒤주와 굽뚝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한다. 아파트 광풍(狂風)으로 얼룩진 지난해는 한국사회의 양극화가 절정을 이룬 시기였다. 경제적인 부자 특정지역으로 집중되고, 빈부 격차는 극심해졌다. 올해도 이 간극(間隙)은 더욱 벌어질 전망이다.

않는다면, 호남 민심은 흔들릴 것이다. 지역화합이나 상생의 정치를 바라는 것도 난망하다. 대선에서 표(票)를 기대하기도 힘들 것이다.

자존심까지 배려해야

부유층은 '돈을 가진 자의 도리'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 도리를, 류이주의 8세손인 류응교(柳應教·전북대) 교수는 '200년이 지나도록 막하지 아니하고 오늘날까지 가문이 번창한 것은 오로지 분수를 지키며 생활하고, 이웃을 돌보았던 마음이 전승되어 내려왔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썼다(<http://unjorou.com>)

'운조루를 생각하라'는 일감(一喝)은 그 때문이다. 하여, 올해의 학우(話頭)는 '배려'였으면 한다. 없는 자의 자존심까지 '배려'한, 운조루의 숨은 뜻을 되새겼으면 한다.

<겨울 운조루를 보았느냐 / 그 단아함 속에 깃든 / 단호함을 보았느냐 / -누백년 늙은 퇴옹 / 호랑이 빼 대신 / 말뼈가 걸린 / 슬픈 권위의 잔해 / 시골 양반의 위엄과 음덕을 그늘처럼 깔고 앉아서 / 이제는 눈 속에 물려 사라져가는 / 겨울의 전설 / 그 서릿발 같은 아름다움을 보고 있느냐> (유자효, <겨울 운조루에서>) <사회1부장> meonsan@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시설

‘주택대출’ 규제 지방·서민 피해 우려된다

국민은행이 DTI(총부채상환비율) 적용 대상을 모든 지역 및 주택으로 확대하는 등 시중은행들이 '초고강도 대출 금융 제한'에 나서 주택대출 문턱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주택대출은 받기도 어렵거나 받아도 이자 부담 때문에 견디기 힘든 '주택부 부담대출'이 될 지경이다.

기존 DTI 규제는 투기지역 내 시가 6억 원 초과 아파트 신규 취득자에 한해 적용됐지만 국민은행은 이 같은 지역 및 시가 제한을 없앴다. 설령 대출을 받는 데 성공하더라도 소비자는 엄청난 금리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이 가산금리 인상에 속속 나서 주택대출 최고금리가 정초부터 연 7%를 넘어섰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초강도 규제는 수도권 부동산 대란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주택대출의 급증과 맞물려 있다. 보다 강도 높은 규제책으로 주택대출 증가세를 잡겠다는 의도인 듯하다.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 준비 철저해야

광주시와 전남도가 최근 '2008 지역 방문의 해' 대상지로 선정됐다. '지역 방문의 해' 지정은 문화관광부가 지난 2004년부터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는 지역관광산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획기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광주와 전남의 관광산업은 열악하다. 천혜의 관광자원은 풍부하지만 숙박시설과 교통 등 관광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 외국인을 상대로 관광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전문가들도 많지 않다. 관광정보의 미흡과 불친절, 무질서 등도 개선해야 할 과제다.

2008년에는 광주비엔날레와 고향우주센터 인공위성 밭사, 제1회 한평세계 나비곤충 액스포 등 꽃축제가 개최돼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런 행사와 지역의 관광지 및 특산물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준비가 소홀하면 '광주·전남 방문의 해'는 '속빈 강정'이 될 수 있다.

無等鼓

어릴 적 담배에 얹힌 추억이 많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긴 흰방대에서 뿐어 대는 담배연기에 대한 추억은 기본이다. 담배가 농촌의 한 소득원이었던 만큼 한 여름 벼농사로 한창 바쁜 칠이지만 담배 농사 또한 빼놓을 수 없었다. 일담배의 품질에 따라 등위가 매겨지고 가격이 달라지기에 담배 빛깔은 품질별, 크기별 분류는 무엇보다 중요했다. 어찌다 게으름을 피우고, 대충 처리하는 날에는 여지없이 아버지의 꾸중이 날아들곤 했던 기억을 잊을 수 없다.

시골에 이런 추억의 담배 가게는 사라진지 오래다. 최근에는 담배소매점 중 구멍가게는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대기업 운영 편의점(CVS)의 비중은 계속 늘고 있다고 하니 시대의 변화를 실감할 뿐이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담배 십부름에 대한 추억이다. 동네에 구멍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주인은 매주 한번씩 음내나 가게를 받아온다. 시골 사람들은 피우기에는 다소 고급스러운 필터 담배에서부터 필터없는 새마을 담배류, 곰방 대나 종이에 싸서 괴를 봉초 등이다.

변화의 바람은 조그만 담배 가게에도 예지 없이 불어대고 있다. 담배 가게에 얹힌 애기는 이제 영원한 추억거리로 남게 될 모양이다.

/김우성 경제부장 wskim@kwangju.co.kr

과외 권하는 사회

부하고 싶어서 이런단 말이요?’라고 꼭 대답할 것 같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부모들은 아이들을 향해 ‘그 뜻을 사회가 왜 이런 공부를 권하는고?’라고 대답해주시지 못한다.

언제부턴가 이 사회는 ‘과외를 권하는 사회’로 돌변했다. 아파트 단지를 끼고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난 그룹지도를 타이틀로 내 건 소형 과외 학원들, 그리고 입구마다 너털너덜 붙어있는 과외 전화번호들. 교육수장이 바뀔 때마다 사교육비에 대한 정책을 내놓지만, 사교육비는 날로 치솟기만 한다. 사교육비 경감책이나 단속책 등이 발표되면 늘상 특별 단속, 특별 세무조사를 한답시고 낄리를 떨지만 왜 사교육비는 오르기만 하는 걸까? 결론은 간단하다. 음성적 고액 사교육시장은 내버려 둔채 밖으로 드러난 곳들에 대해서만 단

사건에 과외비를 비싸게 받기 위해 졸업증명서를 위조한 이들이 있다는 사실은 이를 증명한다.

덕분에 이제는 부모들이 모이면 서로 금액 높은 과외를 시킨다고 자랑하는 시절이 되었다. 건전한 사교육기관을 권장하기는커녕, 교육학학도 없는 고액 과외 강사에게 자녀 교육을 권하는 사회, 하기야, 자기 자신에게 200만 원짜리 과외를 시킨 분이 교육부장관, 총리까지 지내고 그리 비싸지 않았다고 변명하는 나리에서 누구를 탓할 것인가. 지금이 글을 읽고 있는 교육계 관리자 당신은 과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과외를 권하는 이 사회를 살면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이가 비단 필자만은 아닐 것이다.

〈음악 칼럼니스트·2005년 11월 수상자〉

은펜칼럼은 매월 광주일보 ‘오피니언’ 기고자 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싣는 코너입니다.

연예 대상 시상식 여자 수상자 의상 수수했으면

최근 각 방송사에서 최고 인기 가수와 연기자 시상을 실시했다. 매년 되풀이되는 연례행사다.

그런데 여성수상자의 의상이 너무 과격적이다. 지나치게 신체를 노출시켜 야한 인상을 주기도 해 같은 여성으로서도 민망스럽게 느껴진다. 남성 수상자들은 굉장히 신체가 노출된 부분이 없는데 여성 수상자들은 한결같이 아희복 차림에 가슴이 보일 땅 딸깍할 정도로 깊게 패인 의복을 입는 것은 관심과 시청률을 의식해서일까.

가슴부분이 아슬아슬하고 차마는 짧으며 진한 화장에 장신구를 가득 해야만 돋보이는 것일까.

유독 여성수상자들만 노출이 심한 것은 아직도 여성은 상품화하려는 우리사회의 잘못된 관행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인가.

전국의 많은 시청자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도 고려해 평범하고 수수한 차림에 자연스런 모습으로 수상하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시각에 좋게 보이며 공감을 받는다고 본다. ▲박옥희·광주시 북구 동림동

지도에 북한 행정구역 잘못 표기 바로 잡아야

얼마 전 어린이들을 위한 우리나라 지도를 하나 샀다. 앞면에는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이 표기되어 있고, 뒷면에는 각 지방의 민속과 풍물을 소개한 지도였다. 집에 돌아와 지도를 유리창문에 붙인 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북한의 행정구역이 6개도로 잘못 표기된 것이다.

북한은 지난 1946년 9월 평양을 평안남도에서 분리해 처음으로 직할시 겸 특별시로 행정기관을 시도했으며, 49년 1월에는 자강도를 신설하였고, 이어 54년 10월에는 랑강도를 신설하고 황해도를 남·북으로 나뉘 9개도로 행정구역을 개편하였다.

▲정현창·광주시 광산구 융동

光州日報

회장 許宰皓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禪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	지사·자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 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여론체부 2200-628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체육부 2200-627	디자인부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시업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총무부 2200-570	※구독료 월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